

문화광장



장수명
동화작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한 나라. 노인인구 10%가 치매 진단을 받은 나라. 치매 유병률 가운데 9%가 초로기치매 진단을 받은 나라. 이 모든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다.

누구도 걸리고 싶지 않다는 질환 1순위 치매.

'지난, 1월에 우연히 큰아이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 근황을 알게 됐다. 운동회 때면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골뱅이를 뽑아 먹이던 다정하고, 거침없던 선생님. 그 선생님이 치매를 앓고 있다고 했다.

치매입니다

그런데 당신 스스로 치매 진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아무런 치료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치매'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 있는 노인성질환 중에 하나라고 흔히 알고 있는 치매. 하지만 최근 다양한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결과 누구나 나이가 들면 발병할 수 있는 노인성 질환이 아니라 치매는 분명한 뇌 질환 중 하나라고 밝혀졌다. 그럼에도 이 질환만큼 대상자 스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어려운 질병도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선 치매를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망령 혹은 노망이라 부르며 기피(忌避)했던 질환이다. 이러한 이유로 치매 진단을 받고도 약을 복용하지 않거나 경도인지장애 판정에서 재진단을 마루거나 받지 않아서 진행 속도를 현저히 늦출 수 있는 시기마저

놓치는 경우 또한 허다하다. 게다가 분명한 진단을 받았음에도 대상자 본인에게 치매 진단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하고 어설피 말로 대상자를 혼란하게 만들어 대상자 스스로 치료에 참가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실정이고 보니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이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과거 2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암환자에게 진단명을 알려주느냐, 마느냐에 많은 의견들이 분분했다. 하지만 대상자 스스로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인권에 관한 다양한 해석이 이뤄지면서 대상자에게 병명과 치료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기 시작했다. 치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치매입니다'

대상자에게 정확한 진단명을 알려주고 다양한 활동과 약물요법 등의 치료방안을 설명해 주고 대상자 스스로 치료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며 이런 다양한 요법(療法)이 치매 진행 속도를 상당히 늦출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치매는 완치할 수 있는 질병은 아니지만 빠른 약물요법과 다양한 활동으로 얼마든지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것을 환자나 가족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은 물론, 사회 전반적인 인식개선 사업에 역점(力點)을 뒀어야겠다.

또한 미래세대를 위해, 2018년 정책적으로 추진한 '치매 국가책임제'를 수정 보완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치매예방사업과 인식개선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설

추경 취지 맞게 꼼꼼한 예산심사 이뤄져야

올해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도는 추경 7조4767억원 을 편성하고 제주도의회에 제출 했다. 당초 예산 대비 4128억원 늘어났다. 제주도는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의회 심사과정에서 '민생예산'을 놓고 공방이 치열하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의원들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민생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지만 오히려 도지사 공약과 시설사업에 예산이 집중됐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민생경제 활력과 서민 가계 안정 지원사업으로 1099억원이 증액됐지만 도지사 공약 관련 사업에도 834억원이 증액됐다는 것이다. 또 추경에서 사업비가 2700억원인데 1300억원이 시설비 중심으로 편성된 것을 놓고도 날 선 공방

이 오갔다. 재정안정화기금까지 끌어다 쓰면서 막상 민생예산은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송악산 일대 사유지 매입은 제동이 걸렸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확보 계획, 토지 매입 후 활용방안,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심사위원들이 밝혔다.

집행부의 예산편성권도 존중돼야 하지만 도의회 예산심사·의결권도 존중돼야 한다. 제주도는 민생경제 활력이라는 추경 취지에 맞게 예산이 편성됐는지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 또 도의회 각 상임위도 소관별 예산심사서 추경 취지에 맞게 예산편성이 이뤄졌는지 꼼꼼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 등을 걸러내고 서민 가계와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 안정 대책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열린마당

火 키우는 불법주정차



고태혁
제주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

대형화재가 발생했을 시 소방 펌프 차량에 신고 다니는 소방용수만으로는 진입하기가 어려울 때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소화전이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들로 인해 소화전을 찾아보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방시설 및 소화전 주변 5m(적색표시) 이내와 소화전이나 좁은 도로에 표시되어 있는 붉은색 주차금지선(적색노면표시) 근처,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이다. 이

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8만원, 승합 및 대형차량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방차 출동 시 불법 주정차 차량이 가로막은 경우 출동한 소방공무원이 강제 처분해 소방활동을 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차량 파손은 보상하지 않는다.

도내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에서는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캠페인,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소방통로 확보 훈련 등 다양한 홍보와 훈련을 통해 개선 방향을 주도하고 있으나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식 개선이다.

다양한 이유로 소방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1분, 1초가 매우 중요하며 시간의 지체는 생명과 재산을 순식간에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의 안전을 위해 경각심을 갖고 소방시설 등에 대해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장치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마약 예방 캠페인 'NO EXIT' 전개

김경학 의장, 릴레이 동참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이 제주지역 마약범죄 중독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마약 예방 캠페인 'NO EXIT' 릴레이에 동참해 눈길.

NO EXIT 릴레이 캠페인은 마약 중독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알리고, 마약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캠페인으로 NO EXIT는 중독성이 강해 빠져나오기 힘든 출구 없는 미로와 같은 마약의 위험성을 의미.

김경학 의장은 "제주지역 마약 사범은 124명으로 2021년 대비 63.6% 증가하는 등 도내 마약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젊은 지성을 주도하는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에서도 마약범죄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 이태윤기자

해체 공사 1시간 만에 중단

○...제주시가 생활SOC복합화 사업을 위해 15일 제주시민회관을 해체 공사 1시간 만에 작업을 종료.

이날 오전 9시부터 해체 공사가 시작됐다고 알렸던 제주시는 "갑작스런 비 날씨로 미끄러짐 사고 예방 등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해 외부 지붕재 해체 작업에 투입된 현장 인력을 철수했다"고 안내.

당초 첫날 오후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던 강병삼 제주시장도 일정을 바 꾸어 16일 오전 시민회관을 찾기로 했는데, 강 시장은 해체 과정에 시공자와 시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주민 불편 최소화에 노력해 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진선희기자

제2공항 제주도 최종 입장 정리해야 한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제주 제2공항 도민 경청회'가 마무리됐다. 예상대로 8년 규모의 골만 재확인하고 종료됐다.

지난 3월 29일 성산국민체육센터 1차 도민 경청회를 시작으로 지난 4월 6일 서귀포시 청소년수련관에서 2차 경청회가, 지난 4월 25일 제주시 합림수협 다목적어업인종합지원센터에서 3차 경청회가 있었다.

그리고 지난 13일 열린 마지막 4차 도민경청회도 찬반 갈등만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4차 경청회에서 반대 측은 "공항의 수용 능력은 2개 합치면 적어도 6500만 명 이상이 된다"며 "제주의 소중한 자연생태와 환경, 경관을 파괴하면서 왜 이렇게 불필요하게 공항을 지어야 하나"고 반문했다.

반면 찬성 측은 "제2공항은 제주경제를 바꿀 것이고 그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라며 "일자리가 넘쳐나고 건설경기 활성화가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이날 경청회에 나온 찬반 의견과 이달 말까지 이뤄지고 있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의견 수렴 내용을 종합 정리, 다음 달 초에 도민 의견과 제주도정의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제주 제2공항 문제와 관련 제주도는 도민 의견을 청취한 뒤 수집된 의견만 전달하는 중간자 역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제주도의 최종적인 의견은 확실히 표명해야 한다. 제2공항 문제로 더 이상 갈등이 없도록 심사숙고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부고
홍재만(은마교통 대표이사) 배우자 인동장씨 경실(향년 72세)께서 서기 2023년 5월 14일 02시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3년 5월 17일(수요일)
▶발인일시: 2023년 5월 18일(목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제3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신도리 선영
남편 홍재만, 아들 홍영석, 며느리 이현정, 딸 홍수미, 사위 김진호, 손홍서인, 외손 김민규, 혜인, 강지우, 지영
※ 연락처: 홍재만 010-3698-2639, 김진호 010-3185-9533, 강재은 010-5419-2357
(주)은마교통 직원 일동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이내 가능합니다."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찾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분쟁시 상속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도백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향운철학관
향운거사 이방택
사주, 관상 2가지 방법을 종합해서 운명을 감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기운명이 현재, 미래에 어떠한 운명인가를 알아서 살아가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하루에 오전, 오후해서 2명만 전화 예약 받습니다.
전화 010-7301-7737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실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적물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택지, 상가 긴급매각
1) 성산포 500평 현재 70% 공사중 해안도로접
2) 송당리 1,000평 (분할 가능) 관리지역 (평당 750,000원) 관광농원 입구, 송당리 마을, 2차선 접합
3) 종달리 6,000평 (분할 가능) 관리지역 (평당 1,600,000원) 우도와 일출봉사이 바닷가
4) 시흥리 5,000평 (분할 가능) 잡종지, 일주도로 접합
5) 성산포 12,000평(분할 가능) 해안도로 접합
010-4820-4823 (부동산중개사 아님)

강정동 카페 및 펜션 토지 매각
1 강정 해안도로 접 607평 (카페 A급 토지)
2 강정동 주택지 373평
3 강정 해안도로 뒤 370평 (건축높이 17m가능)
4 서귀포 이마트 근처 180평 (바다조망 건축가능)
5 월평포구 도로 근처 590평 (상가 및 펜션 건축가능)
6 호근동 일주도로 위 범섬 조망 180평 (주택 건축가능)
7 고근산 뒤 5,000평 조경 식재 (별장 건축가능)
※ 부동산중개사 아님
010-7328-1107, 010-6275-5200